

# 국힘 대장동 인터뷰 의혹 규탄 결의...“언론자유 아닌 게이트”

### “권력과 유사언론 유착한 범죄” “일부 정치인 연루 진실 밝혀야”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대법하고 난폭한 국가 문란 범죄에 (김만배 씨) 혼자서 리스크를 안고 가기가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계 김만배가 했던 이야기”라며 “이 진실은 어떤 경우라도 낱알이 숨김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인터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언론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어떤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는 침해돼선 안 된다”면서도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조작을 한 것이므로 게이트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언론 자유 영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를 무마해줬다는 주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는 것이 언론 자유라고 이야기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조작할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권력과 유사 언론이 유착해 마치 건강 약품인 것처럼 마약을 제조해 배달망을 활용해 전국에 유통한다면 그것은 근절돼야 하는 범죄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낱알이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공작으로 재미 본 세력들이 다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났듯이 전문적 공작꾼과 일부 불공정한 언론, 정치인까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 공작은 앞으로 AI(인공지능), 챗GPT 등 IT기술까지 동원해 더욱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후속 입법 조치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오늘 의총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한 규탄 결의를 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결의를 모으자”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대선공작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日 오염수 1차 방류 완료...정부 “이상 없었다”

### 삼중수소 1조2440억 베크렐 방류 2차 시점 미정...시료 기준치 이하

정부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늘 이송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1차 방류분 방출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됐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달 24일 방류를 시작한 후 총 7763㎥(776만3000L)가 방류됐고,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2440억 베크렐(Bq)이었다”며 “간접차단밸브 작동이나 수동정지 등 이상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부근 10km 이내 14개 정점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방출중단 판단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2차 방류 개시 시점은 미정으로 확인됐으며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 사무소에 파견된 우리 전문가들의 활동 결과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박 차장은 “전문가들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약 2주간 현지에 체류하면서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포함해 IAEA와 기술 회의를 수차례 밀도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회의를 통해 IAEA가 도쿄전력과 별개로 해수배관헤더 및 원전 인근 해역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핵종 농도를 자체 분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AEA의 점검활동 범위가 중앙감시제어실·K4 탱크 등에 걸쳐져 있다는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8일 원전 시설을 방문해 K4 탱크와 오염수 이송설비를 관찰하고, 주요 설비의 구체적 위치 정보도 확인했다고 박 차장은 말했다.

박 차장은 “K4 탱크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향후 방출 예정인 C탱크와 A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임을 확인했다”며 “이송설비에서는 유량계를 직접 관찰해 그간 모니터링했던 데이터와 유사한 시간당 18~19㎥ 내외의 오염수가 희석 설비로 옮겨지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작동한 오염수 이송배관 누설감시기 관련 사항,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등 추가 정보를 일본 측과 질의응답을 통해 확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은 누설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일 오후 8시 7분부터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일본 측은 최근 내린 빗물이 누설 감시기 덮개 내부로 스며들어 오작동했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지난 8일 관리형 산업폐기물 관리동에서 작동한 화재경보기, 전날 새벽에 폐기물 처리건물에서 작동한 누설감시기 등을 포함해서도 “3건 모두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신 국장은 말했다.

/연합뉴스

## 선거구획정위 “국회, 내달 12일까지 선거구 확정해달라”

### “더 지연엔 유권자 참정권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내달 1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획정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 선거구획정 기한이 5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국회로부터) 회신받지 못해 선거

구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였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해야 하는 획정위 업무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1월12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고, 오는 12월12일부터

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지는 등 본격적인 22대 총선 선거일이 시작된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될 경우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10월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36.7%...1.3%p 소폭 올라

### 리얼미터 조사...부정평가 59.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8월 29일~9월 1일)보다 1.3%

포인트(p) 오른 36.7%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부터 4주 연속 30% 중후반대에서 소폭 등락(38.3%→35.6%→37.6%→35.4%→36.7%)을 반복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1.2%p 내린 59.9%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4.9%p ↑), 대구·경북(3.0%p ↑), 서울(2.8%p ↑), 광주·전라(1.2%p ↑), 부산·울산·경남(1.2%p ↑)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30대(10.3%p ↑), 20대(1.5%p ↑) 등에서 올랐고 70대 이상(5.5%p ↓)에서는 내렸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2%p ↑)·중도층(1.5%p ↑)에서 오르고, 진보층(1.2%p ↓)은 내렸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3	22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 전형일: 2023. 10. 6(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9(금)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3. 9. 11(월) ~ 15(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